

제습기 안전성 전면조사, 2개 업체 4개 모델 개선명령

주요 브랜드 27개 제습기에 대해 안전성 조사 실시



국가기술표준원은 선풍기 에어컨과 더불어 대표적인 여름철 가전으로 시장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는 제습기에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국내 제습기 시장규모(시장조사기관 GFK) : '09년 112억 원 → '12년 1,529억 원 → '13년 3,500억 원

제습기 안전성 조사 결과 소비자 안전에 크게 위해가 되지 않으나 전도 안정성 시험에서 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4개 제품에 대해 개선명령을 조치하였다.

※ 개선명령: 안전인증 후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 안전인증기관이 대상업체에 부적합 내용을 개선토록 요청하는 행정처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8조 관련)

이번 안전성 조사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요 브랜드 대부분을 포함해 27개 제품으로 약 1개월간 감전보호, 온도 상승, 누설전류, 절연내력, 전도 안정성 등 시험이 이루어졌다.

* 수평면에 대해 10도 기울어진 경사면에서 제품이 넘어지지 않을 것

시험대상 27개 제품 모두 화재 또는 감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감전보호, 온도상승, 누설전류, 절연내력 등 시험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1개 제품이 전도 안정성 시험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소비자원에서 행정조치를 요청한 3개 부적합 제품과 함께 안전인증기관을 통해 개선명령 조치하였다.

* 한국소비자원은 제습기 11개 제품에 대해 품질비교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 전도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한 3개 제품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행정조치를 의뢰('14.8월)

국가기술표준원은 그 동안 여름철을 맞아 제습기 외 선풍기, 에어컨, 전기훈증살충기, 구명복, 선글라스, 수영복, 공기주입보트 등 여름철용품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8개 제품에 대해 지난달 리콜명령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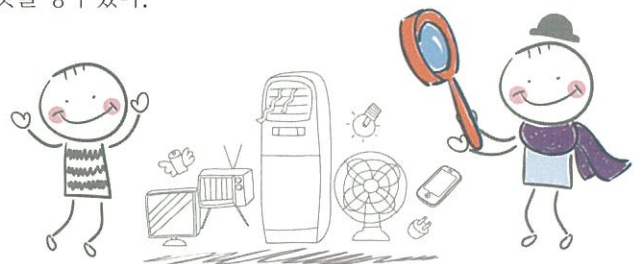
* '14. 7. 25. (금) 조간 보도자료(선풍기 2개, 공기주입보트 1개 등 8개 제품 리콜실시) 참조

앞으로도 국표원은 계절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크게 위해가 끼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한국소비자원 등과 협력하여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전기매트, 전기방석, 전기냉온수기, 전기스토브 등 겨울철용품에 대해 안전성조사 실시('14.11월) 예정

또한, 소비자가 제품안전정보센터(1600-1384) 등을 통해 불법·불량제품 신고를 하는 경우 안전성 조사 후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정부가 안전성을 인증한 KC마크를 우선 확인하고 KC마크가 있는 제품이라도 사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제품안전정보센터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 (043-870-5422)